奉祝隨想

지금 여기, 부처님은 오실 수 있을까

누군가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사월과 오월이라 답하겠다. 산과 들에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도 아름답지만, 연초록 물이 오른 나무들이 주는 환희는 말로 다 담기 어렵다. 밝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잎과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맑은 새소리는 시간을 흔들듯 청명하게 마음을 두드린다. 나는 이 복된 순간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수집한다. 이 계절의 산빛은 곧 부처님의 모습이며, 청아한 물소리는 그대로 미묘한 법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거리마다 걸린 봉축 현수막의 문구를 찬찬히 되새겨 본다. '불기 2569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흘러온 세월이다. 그 시공간과 지금 이 순간, 2025년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생명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 그리고 '오신 날'이라 한다.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그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또 지금 우리에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신 날'은 단순히 탄신일인가, 아니면 그 너머의 뜻을 되새기는 날인가?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님오신날'은 곧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지금 여기에도 부처님이 오실 수 있는가?"를 묻는 날이다.

이처럼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사월 초파일은 단지 연등을 달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 축제가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나 또한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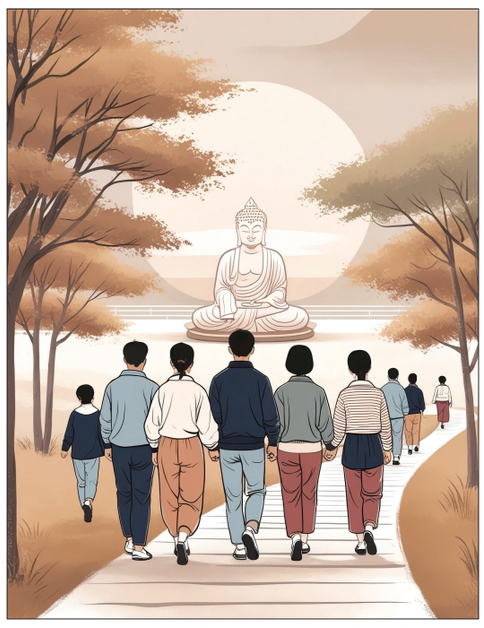
나는 중학교 시절 부처님을 만났다. 내년이면 출가 50년, 반세기를 수행자로 살아온 셈이다. 이 복된 삶은 오직 부처님의 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정성껏 시주해 온 이 땅의 착한 불자들 덕분이다.

초심을 지나 오랜 세월, 나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과 대승불교의 사상에 깊이 몰두했다. 경전의 숲에서 만난 가르침은 늘 내게 전율과 감동이었다. 이제 나의 관심은 그 사상과 해석을 넘어, 부처님 그 자체로 향하고 있다. 사람들 속에 살아가며 그들의 삶터에서 함께 머무셨던 부처님, 고통을 마주하고 그 원인을 고뇌하셨던 부처님을 떠올린다.

카스트 제도와 신분 차별, 가난과 전쟁, 성차별과 무지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며 함께 아파하셨던 부처님. 나는 그분의 슬픈 눈동자를 기억하고, 고통의 근원을 끊기 위한 부처님의 구도 여정을 떠올린다.

〈화엄경〉은 말한다. 과거와 현재는 단절된 것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이어진 살아 있는 순간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은 곧 부처님께서 살아가셨던 자리와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을 잡고,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대들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싯다르타가 '성안'을 나와 '성 밖'에서 만난 이들을 떠올린다. 농경제에서 과도한 노동과 부실한 식사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밭을 갈던 농부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오늘날 극단적 격차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의 삶은 또 어떠한가?

정각을 이룬 직후, 부처님은 청년 야사와 그 친구들을 만났다.

"아,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고 비참합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야사여, 이곳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대에게 가르침을 설하겠으니, 앉으십시오."

그리고 보시와 지계, 쾌락의 위험과 그것을 넘어선 참된 행복에 대해 설하셨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면, 오늘날 야만적인 경쟁 교육의 정글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이 떠오른다. 차별과 불공정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불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이 만든 신종 카스트 사회에서, 불교는 어떤 지혜와 방편바라밀을 구현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셨던 '뜻'이며, 실천으로 구현해야 할 보시바라밀임을 확신한다.

오늘날은 '탈종교의 시대'라 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특정 종교를 갖지 않으며 특히 20대는 78%가 무종교인이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이나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라지는가? 괴로움과 불안을 넘어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은 여전히 살아 있다.

고요하고 청정하며 평온하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 누구나 바라는 삶이다. 비록 혐오와 배제, 독점과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이지만, 그런 삶이 마음 편한 길이 아님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협동과 자애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한다.

그렇다.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해도, 인간 내면의 종교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은 견해에 물들지라도, 지혜와 자비의 불성(佛性)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자 인간 본연의 에너지다.

5월 5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하지만 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평생 걸으셨던 두 갈래 길을 우리 또한 따라야 한다.

첫째, '나의 마음'을 공부하는 길이다. 마음은 한순간도 삶에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삿된 생각과 부도덕한 마음은 삶을 혼탁하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삶 속에서 받는 업보다. 〈화엄경〉에서는 '염염보리심처처안락국(念念菩提心 處處安樂國)'이라 했다. 매 순간 보리심을 내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둘째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이루신 승가는 다름 아닌 공동체였다. 연기법은 '나는 이웃과의 나이고, 이웃은 나와의 이웃이다'라는 깨달음이다. 혼자만 살고자 하면 혼자도 살 수 없다는 가르침이 바로 연기법이다. 이 땅의 모든 유정(有情) 무정(無情)의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순리이다.

우리가 수행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시리라. 그런 세상을 희망하며 발원한다.

오! 부처님.
저는 '세상에 평안 마음에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미움과 사랑은 본래 없지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움도 사랑도 사라진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분열과 일치가 본래 없지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분열과 일치조차 의미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위로받는 자와 위로하는 자가 본래 없지만
고통받는 이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로조차 필요 없는,
자비와 헌신이 자연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법인 스님(화순 불암사 주지)

社說

'불교의 달'의 진정한 회향은 '화합'

산불 · 지진 · 탄핵으로 국민 불안 가중
선명상 · 담선법회로 '마음 평안' 제시
진정한 평안은 함께 행복할 때 완성

조계종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MZ들의 축제'라 불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연인원 20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참여 인원의 73%가 20~30대 청년이고, 무종교인 비율이 47%로 집계돼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서울 봉은사 일원에서 열린 국제선명상축제에는 6만여 명이 참가했고 1만여 명이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담선대법회에는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해 선지식 일곱 스님의 감로수 같은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별주간은 접수와 동시에 50여 개 사찰의 2500명 정원이 마감되기도 했다. 모두가 '마음 평안'을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기간 우리 사회는 '마음 평안'하지 못한 일들이 잇따랐다. 대형 산불은 수많은 이들의 삶터를 집어삼켰고, 미얀마 강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으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처럼 모두가 혼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불교계는 조용한 위로와 치유를 건넸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여러 캠페인으로 '나'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게 하고, 산불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에 발 빠르게 나서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았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도 앞장섰다. 불교계 지도자들은 비상계엄 직후 '기도와 행동으로 국민 곁에서 정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내 분열과 혼란을 막았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치인들에게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데 책임을 느끼고 참회해야 한다"고 매섭게 경책했다.

'마음 평안'은 개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평안은 나 혼자의 안락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며 올해 봉축법요식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한국옵티컬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봉축법요식을 끝으로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은 막을 내리지만 일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발견하고, 나부터 지혜와 자비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다면 매일이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부처님 오신날을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축하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재단이사회
이 사 장 경원
명예이사장 일명
부 이 사 장 경담
상 임 이 사 오원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 정 대륜
총 무 원 장 혜일
종정비서실장 지명

원로회의
원 로 의 원 혜천 현암 법성 법선 경원 승원

중앙종회
종 회 의 장 도정
종 회 의 원 재단이사회 고봉 석경 무착 정암 서현 보은 동철 성운 혜성 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 계 원 장 동청
교 육 원 장 지언
포 교 원 장 지명
문 화 원 장 제법
고 시 위 원 장 지광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감 사 원 장 법광
포교부원장 덕산
문화부원장 해동
총 무 부 장 혜광
교 무 부 장 덕운
총 무 국 장 보륜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남교구 덕 운
대구교구 무상심
울산교구 현 산
전북 · 전남교구 지 명
제주교구 제 법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